

미래형 교육체계 전환의 필요성

“

앞으로의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제 대학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교육 분야를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



성균관대 교수 정일섭

(031)290-7152 | chung@skku.ac.kr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디지털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 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 솔루션, 바이오 신약·장기 분야를 선정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이후 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분야 선정의 의미를 떠나서 국가산업전략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IT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한 축으로 각종 신기술의 시험장으로 그 가치를 한껏 높이고 있다. 이런 기술혁명을 주도하는 IT 분야의 각종

신기술이나 차세대성장동력 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술의 표준화 부분이다. 표준화 된 기술은 시장진입이나 시장점유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형태의 기술은 사용될 환경과의 적합화, 규격화를 통해서 기술이 필요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받아드려 질 수 있다. 과거 산업의 경우 규격화가 기술보급 이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사회의 성격과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세계각국의 전원공급 장치의 규격이 달라서 생기는 불편함을 여행하면서 한 번쯤은 느꼈으리 생각된다. 나라별로 지원되는 전압과 형태가 제



표 / 준 / 논 / 단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자기기 제품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나라별로 전원장치의 특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어댑터가 필요하고 실수로 미리 챙기지 않았을 때 현지에서의 당혹감이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지 실감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현상은 기술과 표준화가 동기되지 않았거나 반영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시간이 흘러간 뒤에 표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겪어야 할 불편함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의 미래에는 어떻게 "무엇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은 많은 정부부처 사람들이나 산업체 종사자들이 던지는 중요하면서도 답이 간단치 않은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가 도출되었고 현재 정책개발과 지원을 통해 소관부처별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고 있는 대학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접근해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 대학은 외부로부터 무사안일한 교육과정 운용에 대한 비난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런 개혁의 대상으로서 대학은 핵심인력이 될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절감하며 능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을 꾀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이나 계약학과의 운용이 도입되고 있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에서의 역할분담이 중요시 되고 있다. 오늘날 같이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대학이 할 수 역할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시대는 강점 분야만 집중, 뒷받침할 전략을 세워야 때다.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가 중요한 선택전략이 된다. 이런 승자가 독식하는 미래에 대학이 할 수 역할은 다양하겠으나 기술표준화 분야에서 특히 그 역할이 기대된다. 물론 표준화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한정적 일 수 있으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구축된다면 기술표준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인력 양성, 인적 네트워크 유지 등에서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물론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절하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 개발의 패키지 차원에서 검토되어, 연구협력 체계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와 ISO/IEC 등의 국제 표준화 기구들에서 활동을 통해서 표준화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향후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표준화 전략 수립, 표준화 분야 및 표준화 항목의 선정 등에 대한 다양한 forum 활동도 필요할 것 같다. 아울러 이런 표준화의 기술적 부분을 진행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종사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기업인, 경제인, 학자, 정책결정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앞으로의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 즉,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제 대학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교육 분야를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기술표준은 과거와 같이 표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한 한정적인 역할이 아닌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할 것인 만큼 그에 걸 맞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준**